

남녀아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사회적 지원, 스트레스 및 아동의 기질

Parenting Self-Efficacy, Social Support, Stress, and Children's Temperament
Among Korean Boy's and Girl's Mothers

최형성(Hyung Sung Choe)¹⁾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s of mothers' perceived social support, stress, and children's temperament on parenting self-efficacy of boy's and girl's mothers among 416 Korean mothers living in Seoul, Korea. Results showed that mothers' parenting self-efficacy of boys and girls were positively related to mothers'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children's temperament. On the other hand, parenting self-efficacy of both boys' and girls' mothers were negatively related to mothers' stress. Multiple regression indicated that mothers'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children's temperament were the significant predictors for mothers' parenting self-efficacy of boys and girls. Husbands' support, support from social network, approach-withdrawal, and activity level-general were the significant predictors for mothers' parenting self-efficacy of boys. Husbands' support, support from social network, conflict with their children, transition of husband's job, difficulty of finance and business were the significant predictors for mothers' parenting self-efficacy of girls. Husbands' support was the strongest predictor of mothers' parenting self-efficacy of boys and girls.

Key Words : 어머니(mother), 사회적 지원(social support), 스트레스(stress), 기질(temperament), 양육효능감(parenting self-efficacy), 아동의 성(child's sex).

I. 서론

급변하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자녀를 양육하
기란 쉬운 일이 아니기에 점차 부모들은 부모로

서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잃어가고 있다. 그러나
양육자로서 효능하다는 지각은 양육자로서의 만
족감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양육 행동 및 자녀발
달에도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기에 소홀히 할 수

¹⁾ 고려대학교 가정교육과 시간강사

Corresponding Author : Hyung Sung Choe, Departmen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University, Seoul 136-701, Korea E-mail : hyungsung@hanmail.net

없는 중요한 연구주제이다.

학자들에 따르면 양육효능감은 양육과 관련된 요인들, 예를 들면 가난이나, 까다로운 아동의 기질, 사회적 지원, 우울과 같은 요인들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중재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Coleman & Karraker, 1997). 또한 양육효능감은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과 문제 행동과도 관련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Mash & Johnston, 1983; Johnston & Mash, 1989; Teti & Gelfand, 1991). 부모교육 프로그램이나 치료 프로그램들은 이러한 영향력으로 인해 부모의 양육효능감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Webster-Stratton, 2000).

최근 양육효능감에 관한 연구들은 양육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들, 예를 들면, 자폐아, 장애아, 행동 문제아, 정서 문제아 등을 둔 부모들을 대상으로 부모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양육효능감을 높이고 부모와 아동의 긍정적인 발달을 유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Brookman-Frazee, 2004; Dempsey & Dunst, 2004; Desjardin, 2003; Martin & Sanders, 2003). Martin과 Sanders(2003)은 양육효능감 증진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연구하였으며, 프로그램 실시한 직후와 4개월 후의 조사를 통해 양육효능감은 증가되었고, 아동의 문제행동과 역기능적인 양육행동은 줄어들었음을 보고하였다.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양육효능감이 높은 어머니는 자녀에게 수용적이며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을 좀 더 원활하게 이끄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Coleman & Karraker, 1997; Dorsey, Klein, Forehand & Family Health Project Research Group, 1999; Teti & Gelfand, 1991). 반면, 낮은 양육효능감을 소유하고 있는 어머니는 강압적이거나 무기력한 양육행동뿐 아니라 아동을 학대하는 경향이 있다(Bugental, Blue, & Cruzcosa,

1989; Coleman & Karraker, 1997; Gondoli & Silverberg, 1997; Teti & Gelfand, 1991). 또한 양육효능감은 아동발달과도 관련되어 있어 높은 양육효능감은 아동의 바람직한 심리적 적응과 관련되어 있으나 낮은 양육효능감은 아동의 문제 행동과 관련되는 경향이 있다(Coleman & Karraker, 1997; Dorsey 등, 1999)

Bandura(1977, 1982, 1997)의 자아효능감의 개념에서 시작된 양육효능감은 학자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자녀를 바람직하게 양육하는 능력에 대한 부모 자신의 신념을 의미한다(최형성, 2002). 본 연구는 선행 연구에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음이 보고된 바 있으나, 이 변인들을 통합할 때 어떤 변인이 어느 정도로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지 아직까지 연구되지 못한, 어머니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원과 스트레스, 그리고 아동의 기질을 중심으로 이 변인들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아동의 성별에 따라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Bogenschneider, Small, & Tsay, 1977; Dumka, Stoerzinger, Jackson, & Roosa, 1996; Kotchick, Forehand, Brody, Armistead, Simon, & Clark, 1997; Levi-Shiff, Dimitrovsky, Shulman & Har-Even, 1998; Teti & Gelfand, 1991). 이러한 연구는 양육효능감에 관한 연구가 아직 부족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나 치료 프로그램보다 선행되어야 할 연구라 하겠다.

아동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관한 연구들은 대체로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과 양육효능감과의 부적적인 관계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Cutrona & Troutman, 1986; Mash & Johnston, 1983; Teti & Gelfand, 1991). 기질이란 행동양식으로서 행위가 수행되는 일관된 패턴을 의미한다(Thomas & Chess, 1977). 까다로운 기질을 가진 유아는 어머니로 하여금 양육 행동 수행

의 많은 부분을 좌절시키므로 까다로운 유아의 기질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다. 까다로운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의 부정적인 관계는 Cutrona와 Troutman(1986), Mash와 Johnston(1983)과, Teti와 Gelfand(1991)의 연구에서도 보고된 바 있다.

사회적 지원과 양육효능감에 관한 연구들은 사회적 지원이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지원이 높을수록 양육효능감이 높다는 대체로 일관된 연구결과들(Cutrona & Troutman, 1986; Johnston & Mash, 1989; Shapiro & Mangelsdorf, 1994; Teti & Gelfand, 1991)을 보고하고 있다. Cutrona와 Troutman(1986)에 따르면 임신 중 높은 사회적 지원을 지각한 어머니가 출산 후 높은 양육효능감을 소유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특히 아이의 아버지에게서 받는 사회적 지원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매우 크게 관련되는 경향이 있다(Shapiro and Mangelsdorf, 1994).

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대체로 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 간의 부적적인 관계를 보고하고 있다(Kotchick 등, 1997; Dumka 등, 1996; Levy-Shiff 등, 1998; Scheel & Rieckmann, 1988). Kotchick과 동료들(1997)에 따르면 부모의 질병, 경제적 곤란, 대인간 갈등과 같은 스트레스가 어머니의 낮은 양육효능감과 관련되어 있다고 한다. Scheel과 Reickman(1988)은 스트레스가 양육효능감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임을 보고하였다.

양육효능감에 관한 연구자들 중에는 부모 및 아동의 성차와 양육효능감의 관계에 관심을 기울여 온 연구자들이 있다(Bogenschneider 등, 1977; Johnston & Mash, 1989). Bogenschneider와 동료들(1977)은 아동의 성별에 따라 어머니

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변인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 청소년 남아 어머니의 경우 부모의 민감성, 배우자의 도움, 주위의 도움, 아동의 개방성이, 청소년 여아 어머니의 경우 가족 구조, 부모의 민감성, 근무시간, 아동의 개방성, 부모-자녀간의 스트레스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다고 보고하였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양육효능감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지 못하여 왔으며, 남아와 여아 어머니를 구분하여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차이를 살펴본 연구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 및 스트레스, 아동의 기질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과 아동의 성별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 및 스트레스, 아동의 기질을 통해 남녀아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살펴봄으로써 이에 관한 기초자료 제공과 더불어 남녀아 어머니 각각을 대상으로 양육효능감 신장 부모교육 프로그램과 치료 프로그램의 개발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넘어가는 초기 단계인 초등학교 고학년의 시기는 예전보다 또래와 함께 하는 시간과 활동의 양이 많아지고,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이려는 특성이 강해지는 시기이다. 부모는 이 시기를 통해 새로운 양육에 대한 가치와 태도, 행동을 갖추어 나가게 된다. 아직까지 아동을 양육하는 일차 책임자가 어머니라는 점과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해 양육효능감을 측정하는 대상이 주로 어머니였다는 점(Dorsey 등, 1999; Levi-Shiff 등, 1998; Teti & Gelfand, 1991)을 고려하여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를 둔 어머니

를 대상으로 양육효능감을 살펴보는 일은 이에 관한 기초자료가 전혀 없는 현실에서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할 과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를 둔 남녀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 스트레스가 남녀아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이에 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양육효능감 신장 및 부모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상과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남녀아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과 스트레스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2> 남녀아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대하여 설명력을 갖는 변인은 무엇인가?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3개구의 3개 초등학교에 다니는 5, 6학년 아동의 어머니 416명(남아의 어머니 197명, 여아의 어머니 219명)을 자료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어머니들은 5, 6학년에 해당되는 아동 1명을 선택하여 그 아동에 대해 응답하도록 요구받았다. 조사대상 아동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남아의 경우 11세가 46.7%, 12세가 34.5%이었으며, 첫째아인 경우가 50.0%, 둘째아인 경우가 40.8%이었다. 남아 어머니의 연령은 36에서 40

세가 50.5%, 교육수준은 고졸인 경우가 55.8%, 직업은 전업주부인 경우가 60.1%이었다. 가정의 한달 평균 수입은 200만원에서 249만원인 경우(21.8%)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아의 경우 11세가 48.0%, 12세가 37.0%이었으며, 첫째아인 경우가 57.1%, 둘째아인 경우가 37.9%이었다. 여아 어머니의 연령은 36에서 40세가 58.6%, 교육수준은 고졸인 경우가 62.2%, 직업은 전업주부인 경우가 49.3%이었다. 가정의 한달 평균 수입은 200만원에서 249만원인 경우(24.5%)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측정 도구

1)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최형성과 정옥분(2001)이 개발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37문항으로 구성된 본 척도는 '전반적인 양육효능감',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의사소통 능력', '학습지도 능력', '훈육 능력' 등 5개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는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척도의 높은 신뢰도(Cronbach's $\alpha=.92$), 하위척도의 높은 신뢰도(Cronbach's $\alpha=.75\sim.86$)와 높은 반분 신뢰도(.71~.84), 그리고 높은 요인 타당도(.65~.86)가 보고된 바 있다(최형성·정옥분, 2001). 총점수는 37점에서 185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양육효능감을 의미한다. 최형성·정옥분(2001) 척도의 신뢰도는 .92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척도 전체의 신뢰도는 .95, 하위 척도의 신뢰도는 .73-.87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을 측정하기 위하여 신

숙재(1997)가 제작한 사회적 지원 척도를 사용하였다. 신숙재(1997)의 척도는 ‘남편의 협력’, ‘주위의 도움’ 등 2개의 요인, 25문항,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총 점수는 25점에서 125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사회적 지원을 의미한다. 신숙재 척도의 신뢰도는 .91과 .85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주위의 도움은 .91, 남편의 협력은 .93이었으며, 척도전체의 신뢰도는 .93인 것으로 나타났다.

3) 어머니의 스트레스

어머니의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진현희(1994)가 사용한 가족 스트레스 척도를 진현희의 사전 동의를 얻어 수정한 후 요인분석하여 사용하였다. 요인 분석 결과 20개 문항에서 5개 하위요인- ‘건강문제’, ‘남편의 직업 전환’, ‘남편과의 갈등’, ‘경제적 곤란’, ‘자녀와의 갈등’, 4점 척도로 재구성된 이 척도는 총 점수는 20점에서 80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스트레스를 의미한다. 진현희 척도의 신뢰도는 .9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를 산출한 결과 척도 전체의 신뢰도(Cronbach’s α)는 .93, 각 하위요인의 신뢰도는 .67~.88, 요인 타당도는 .67~.88이었다.

4) 아동의 기질

어머니가 지각하는 아동의 기질을 측정하기 위해 이명숙(1994)이 번안한 ‘개정판 기질 차원 척도(DOTS-R)’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이명숙(1994)의 척도를 어머니가 아동의 기질에 대해 평가할 수 있도록 질문 문항의 첫 부분인 ‘나는’을 ‘내 아이는’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총점수는 34점에서 170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순한 기질을 의미한다. 본 척도는 일반적 활동 수준, 접근-철회성, 융통-경직성, 기분, 주의 집중성, 지속성 등 6개의 기질 차원, 34

문항,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명숙의 척도는 각 기질의 차원에 따라 신뢰도가 .56에서 .8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산출한 각 기질 차원의 신뢰도는 .54에서 .79이었으며, 척도전체의 신뢰도는 .72인 것으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및 자료 분석

본 연구는 2001년 4월 23일에서 28일까지 일주일에 걸쳐, 서울특별시 소재하고 있는 3개 구 3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5, 6학년 아동의 어머니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담임선생님을 통해 배부되었으며, 회수된 456명의 설문지 중 부실한 응답을 한 40명을 제외한 416명을 자료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AS PC프로그램을 통해 분석되었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성격을 비교하기 위해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변인의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t-test를 산출하였다.

스트레스의 요인분석 과정에서 문항 양호도를 알아보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상대도수분포(%), 문항 제거시의 내적 합치도, 문항-척도 전체의 상관, χ^2 검증 및 Cramer’s V를 통한 문항변별도를 산출하였다. 요인분석과정에서 공통요인 분석과 직각회전방법(varimax)을 실시하였다. 요인 타당도 검증을 위해서 Pearson의 적률 상관계수를, 신뢰도 검증을 위해서 Cronbach’s α 를 산출하였다.

연구문제 1을 위하여 상관 분석(Pearson의 적률상관 계수), 연구문제 2를 위하여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 2의 사전 단계로써 중다회귀 분석에 앞서 설정한 모형의 가정이 적절한지 보기 위해, 잔차항들이 서로

독립적이며 정규분포를 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Durbin-Watson계수를 산출하였고, 독립변인들 간의 상관관계가 회귀계수에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고자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을 검증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남녀아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과 스트레스와의 관계

남녀아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 및 스트레스, 아동의 기질과의 관계를 살펴보기에 앞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아동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한 t검증의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양육효능감은 아동의 성별에 따른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1> 아동의 성별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변 인	남아(N=197) M(SD)	여아(N=219) M(SD)	t값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	3.73(.43)	3.73(.48)	0.11

남녀아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사회적 지원, 스트레스 및 아동의 기질과의 관계를 산출하여 제시한 <표 2>을 살펴보면, 남아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과 가장 높은 정적 상관($r=.60, p<.001$)을 보였으며, 아동의 기질과 유의한 정적 상관($r=.37, p<.001$)을, 어머니의 스트레스와는 유의한 부적 상관($r=-.15, p<.001$)을 보였다. 여아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역시 어머

니의 사회적 지원과 가장 높은 정적 상관($r=.70, p<.001$)을 보였으며, 아동의 기질과 유의한 정적 상관($r=.34, p<.001$)을, 어머니의 스트레스와는 유의한 부적 상관($r=-.20, p<.001$)을 보였다.

남녀아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 스트레스와 아동의 기질과의 관련성으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 스트레스와 아동의 기질의 하위영역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의 상관관계를 산출하였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녀아 어머니 모두 사회적 지원 및 아동의 기질의 하위영역들과 정적인 상관을, 어머니의 스트레스의 하위영역과는 부적적인 상관을 보였다. 남아 어머니의 경우, 남편의 협력, 주위의 도움, 접근-철회성, 기분과 매우 유의한 정적인 상관($r=.30 \sim .55$)을, 주의집중성과 지속성과는 유의한 정적인 상관($r=.15$)을, 남편과의 갈등과 자녀와의 갈등은 유의한 부

<표 2> 남녀아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과 스트레스, 아동의 기질의 상관관계

독립 변인	하위 영역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남	여
사회적 지원		.60***	.70***
	남편의 협력	.55***	.70***
	주위의 도움	.47***	.49***
아동의 기질		.37***	.34***
	일반적 활동성	.09	.06
	접근-철회성	.30***	.23***
	융통-경직성	.11	.12
	기분	.30***	.26***
	주의집중성	.15*	.22***
	지속성	.15*	.22***
어머니의 스트레스		-.15*	-.20**
	건강문제	-.09	-.10
	남편의 직업전환	-.10	-.11
	남편과의 갈등	-.17*	-.21**
	경제적 곤란	-.14	-.18**
	자녀와의 갈등	-.15*	-.30***

*** $p<.001$ ** $p<.01$ * $p<.05$

적 상관($r=-.15 \sim -.17$)을 보였다. 여아 어머니의 경우, 남편의 협력, 주위의 도움, 접근-철회성, 기분, 주의 집중성, 지속성과 매우 유의한 정적인 상관($r=.22 \sim .70$)을, 남편과의 갈등과 경제적 곤란, 자녀와의 갈등은 유의한 부적 상관($r=-.18 \sim -.30$)을 보였다.

2. 남녀아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대한 영향 변인

연구문제 2를 살펴보기 위해 단계적 분석방법(stepwise)을 이용한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사전단계로써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에 독립변인간의 상관관계가 회귀계수에 미치는 영향이 없고, 잔차항들이 독립적이고 정규분포함을 남녀아 어머니의 집단에서 확인한 후 단계적 분석방법을 이용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3>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단계적인 분석 방법 (stepwise)을 이용한 중다회귀분석 결과를 아동의 성별로 제시한 것이다. 분석 결과 남아 어머니의 경우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beta=.54, p<.0001$), 아동의 기질($\beta=.18, p<.001$)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설명하는 유

의한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아 어머니의 경우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beta=.66, p<.001$), 아동의 기질($\beta=.09, p<.001$)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설명하는 유의한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스트레스는 남녀아 어머니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은 남녀아 어머니 모두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에서 살펴본 변인들에 의해 남아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38%, 여아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49%가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단계적 분석방법을 이용한 남녀아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 및 스트레스, 아동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의 중다 회귀 분석

예 언 변 인	B	β	R ² 누적량	F
남아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	.410	.542***	.3644	111.81
아동의 기질	.319	.177**	.3916	8.67
adj-R ²			.3822	
여아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	.519	.655***	.4877	206.61
아동의 기질	.181	.091*	.4957	3.42
adj-R ²			.4913	

*** $p<.001$ ** $p<.01$ * $p<.10$

<표 4> 남녀아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

예 언 변 인	B	β	R ² 누적량	F	
남아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남편의 협력	.272	.395***	.3037	85.05
	주위의 도움	.154	.261***	.3717	20.99
	접근-철회성	.167	.138**	.3865	4.68
	일반활동성	.093	.091	.3998	4.24
adj-R ²			.3639		
여아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남편의 협력	.411	.577***	.4944	212.20
	주위의 도움	.137	.209***	.5304	16.56
	자녀와의 갈등	-.072	-.092	.5369	3.00
	남편의 직업전환	.092	.155**	.5446	3.63
	경제적 곤란	-.066	-.113*	.5516	3.33
adj-R ²			.5319		

*** $p<.001$ ** $p<.05$ * $p<.10$

각 변인들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하여 각 변인들의 하위 영역을 독립변인으로 한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남아 어머니의 경우 남편의 협력($\beta=.40, p<.001$), 주위의 도움($\beta=.26, p<.001$), 접근-철회성($\beta=.14, p<.05$), 일반 활동성($\beta=.09$)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아 어머니의 경우 남편의 협력($\beta=.60, p<.001$), 주위의 도움($\beta=.21, p<.001$), 자녀와의 갈등($\beta=-.09$), 남편의 직업 전환($\beta=.15, p<.05$), 경제적 곤란($\beta=-.11, p<.10$)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성별과는 상관없이 남편의 협력이 가장 영향력이 큰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에 의해 남아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36%, 여아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53%가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 및 스트레스가 남녀아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봄으로써 아동의 성별에 따른 남녀아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관한 기초 자료 제공과 양육효능감 신장 및 부모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시작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에 기초하여 주요결과를 논의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아동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비록 자녀의 성에 따라 부모의 기대는 다르다고 할지라도(Hoffman, 1977; Block, 1973), 양육효능감 지각에는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아동의 성에 따라 차이가 나지 않았다는 신속재(1997)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남여아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과 가장 높은 정적 상관, 아동의 기질과 유의한 정적 상관, 그리고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남녀아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위 변인들과의 관계를 모두 종합하여 살펴본 선행연구가 거의 없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사회적 지원이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다는 본 연구의 결과를 비교·논의하기가 쉽지는 않다. 다만,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이 남녀아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가장 높은 정적 상관을 보인 것은 양육에 관한 정보 및 실질적으로 필요한 물질적 도움이 높은 양육효능감과 관련됨을 의미하는 결과라 하겠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이 양육효능감과 관련성이 없음을 보고한 Levi-Shiff와 그 동료들(1998)의 연구와는 상반되지만, 두 변인간의 정적인 관련성을 언급한 Gibaud-Wallston과 Wandersman(1978), Cutrona와 Troutman(1986), Teti와 Gelfand(1991), 신속재(1997) 등의 연구와는 일치하는 것이다.

남녀 아동의 기질과 양육효능감이 정적인 상관이 있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남아이든 여아이든 아동의 기질이 순할수록 어머니의 높은 양육효능감과 관련되어 있고, 기질이 까다로울수록 어머니의 낮은 양육효능감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의 기질과 양육효능감과의 정적인 관계에 관한 본 연구의 결과는 아동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사이에 정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한 Gibaud-Wallston과 Wandersman(1978), Cutrona와 Troutman(1986), Goldberg(1977), Mash와 Johnston(1983), Teti와

Gelfand(1991) 등의 연구와 일치한다.

남녀아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스트레스와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남녀아 어머니의 높은 스트레스가 낮은 양육효능감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가족생활에서 발생하는 높은 스트레스가 남녀아 어머니 모두의 낮은 양육능력 지각과 관련성이 있음을 분명히 지적해 주는 것이다. 양육효능감과 어머니의 스트레스가 부적 상관이 있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 사이에 부적의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한 Kotchick와 그 동료들(1997), Levy-Shiff와 그 동료들(1998), Dumka와 그 동료들(1996), Scheel과 그 동료들(1998) 등의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둘째,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 스트레스와 아동의 기질을 하위영역으로 나누어 남녀아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남아 어머니의 경우 남편의 협력, 주위의 도움, 접근-철회성, 기분, 주의집중성과 지속성과는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 남편과의 갈등과 자녀와의 갈등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여아 어머니의 경우, 남편의 협력, 주위의 도움, 접근-철회성, 기분, 주의 집중성, 지속성과 매우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 남편과의 갈등과 경제적 곤란, 자녀와의 갈등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남편의 협력과 주위의 도움, 접근-철회성, 기분, 주의집중성, 지속성, 남편과의 갈등, 자녀와의 갈등 변인은 남녀아 어머니 모두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관련 변인이었으며, 경제적 곤란은 여아의 어머니에게서만 나타나는 유일한 변인이었다.

경제적 곤란이 여아 어머니에게서만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관련된 선행 연구가 없어 비교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어머니

의 근무시간이 여아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만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난 Bogenschneider와 동료들(1977)의 연구결과와 다소 관련되어 있지 않을까 추측할 수 있으나, 이에 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은 후속 연구를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겠다. 다만 남편의 협력이 다른 변인들에 비해 남녀아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매우 높은 상관을 보였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자녀의 양육이란 다른 누구보다도 부부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일이며 부부 공동의 일이라는 점에서, 아동의 성차와는 무관하게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남편의 협력이 높은 상관을 보이는 것이라 생각된다.

셋째, 회귀분석 결과 남녀아 어머니 모두에게서 사회적 지원과 아동의 기질이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적 지원은 아동의 성별과 무관하게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의미있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위사람들로부터 양육에 관한 정서적, 물질적, 정보적, 평가적 지원 등을 받는 것이 남녀아 모두의 어머니가 양육을 행함에 실질적인 도움과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는 일이라는 점에서 나타난 자연스런 결과라 할 수 있다. 사회적 지원은 부모의 역할 수행에 필요한 시간과 에너지를 공급받고,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양만큼의 에너지를 투자할 수 있도록 조언 받는다는 점에서 사회적 지원이 양육에, 특히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 및 스트레스와 아동의 기질의 하위영역들이 남녀아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남아 어머니의 경우 남편의 협력, 주위의 도움, 접근-철회성, 일반 활동성이, 여아 어머니의 경우 남편의 협력, 주위의 도움, 자녀와의 갈등, 남편의

직업 전환, 경제적 곤란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머니의 스트레스를 하나의 변인으로 한 분석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스트레스의 영향력이 스트레스의 하위영역들을 변인들로 한 분석에서는 나타남으로써 어머니의 스트레스도 양육효능감, 특히 여아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보여주었다.

남편의 협력은 남아와 여아 어머니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이었다. 그러나 남아 어머니의 경우 여아 어머니에게서 나타나지 않았던 아동의 기질의 하위영역(접근-철회성, 일반 활동성)이, 여아 어머니의 경우 남아 어머니에게서 나타나지 않았던 어머니의 스트레스의 하위영역(자녀와의 갈등, 남편의 직업 전환, 경제적 곤란)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의미있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이러한 연구결과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할 때 청소년의 개방성이 남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가장 강력한 변인이었으며, 남편의 협력은 남아 어머니에게서만, 부모-자녀간의 스트레스는 여아 어머니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변인인 것으로 나타난 Bogenschneider와 동료들(1977)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이와 같은 두 연구 결과의 차이는 문화적 차이나 대상 아동의 연령차에 근거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또한 두 연구 모두 아동의 성별에 따라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다르게 나타난 것은 아동의 성별에 따라 양육에 대한 기대나 태도 차이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관련 연구가 너무 적어 좀 더 자세한 해석은 후속연구를 통해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여러 변인들 중에서 남편의 협력이 다른 변인들에 비해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것으

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어머니가 남편과의 관계에 만족할수록 자녀에게 바람직한 양육을 행하는 경향이 있으며, 남편의 지원은 자녀를 잘 돌볼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지원체계라는 선행 연구들의 결과(Brunelli, Wasserman, Rauh, Alvarado & Caraballo, 1995; Simons, Lorenz, Wu & Conger, 1993; Belsky, 1984; Lewis, Owen & Cox, 1988)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Belsky(1984)에 따르면 남편의 협력은 좋은 부부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조화로운 부부관계는 좋은 부모-자녀관계와 관련되어 있다고 한다. 이러한 그의 주장을 통해 좋은 부부관계는 더 많은 남편의 협력을 이끌며, 이러한 남편의 협력이 어머니의 양육이 좀 더 효율적일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요인이 될 가능성을 생각해 보게 된다.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사회적 지원, 특히 남편의 지원이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어머니들 특히,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머니들을 위한 치료 프로그램이나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을 주는 의미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상의 결론 및 논의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남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형성에 사회적 지원이 중요하며 특히 남편의 협력이 중요한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양육효능감 신장을 위한 방법의 하나로 사회적 지원 특히 남편의 적극적인 협력을 유도하는 방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일반 아동을 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차후에는 장애아, 자폐아, 비행아 등을 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연구함으로써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한 양육효능감 신장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남녀아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변인에 대한 본 연구의 결과가 부모 치료 프로그램이나 부모교육 프로그램에서 의미있게 활용됨으로써, 양육효능감이 낮거나 양육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어머니들에게 작으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연구자의 바람이다.

참 고 문 헌

- 신숙재(1997).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원, 양육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이명숙(1994). 기질 및 또래 지지가 청소년의 자기 평가에 미치는 영향 : 단기 종단적 패널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 최형성(2002).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 및 스트레스와 아동의 기질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최형성 · 정옥분(2001).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척도의 개발. *아동학회지*, 22(3), 1-16.
- Bandura, A.(1977). Self-efficacy :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 *Psychological Review*, 37, 122-147.
- Bandura, A.(1982). Self-efficacy mechanism in human agency, *American Psychologist*, 122-127.
- Bandura, A.(1997). *Self-efficacy :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 W. H. Freeman and Company.
- Belsky, J.(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 83-96.
- Block, J. H.(1973). Conceptions of sex role : Some cross-cultural and longitudinal perspectives. *American Psychologist*, 28, 512-526.
- Bogenschneider, K., Small, A., & Tsay, J.(1977). Child, parent, and contextual influences on perceived parenting competence among parents of adolescent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9, 345-362.
- Brookman-Fraze, L.(2004). Using parent/clinician partnerships in parent education programs for children with Autism. *Journal of Positive Behavior Intervention*, 6(4), 195-213.
- Brunelli, S. A., Wasserman, G. A., Rauh, V. A., Alvarado, L. E., & Caraballo, L. R.(1995). Mothers' reports of parental support : Associations with maternal child-rearing attitudes. *Merrill-palmer Quarterly*, 41, 152-171.
- Bugental, D. B., Blue, J., & Cruzcosa, M.(1989). Perceived control over caregiving outcomes : Implications for child abuse. *Developmental Psychology*, 25, 532-539.
- Coleman, P. K., & Karraker, K. H.(1997). Self-efficacy and parenting quality : Findings and future applications. *Developmental Review*. 18, 47-85.
- Cutrona, C. E., & Troutman. B. R.(1986). Social support, infant temperament and parenting self-efficacy : A mediational model of postpartum depression. *Child Development*, 57, 1507-1518.
- Dempsey, L., & Dunst, C. J.(2004). Helping styles and parent empowerment in families with a young child with s disability. *Journal of Intellectual and Developmental Disability*, 29(10), 40-51.
- Desjardin, J. L.(2003). Assessing parental perceptions of self-efficacy and involvement in families of young children with hearing loss. *Volta review*, 103(4), 391-409.
- Dorsey, S., Klein, K., Forehand, R., & Family Health Project Research Group.(1999). Parenting self-efficacy of HIV-infected mothers : The role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1, 295-305.
- Dumka, L. E., Stoerzinger. H. D., Jackson, K. M., & Roosa, M. W.(1996) Examination of the cross-cultural and cross-language equivalence of the parenting self-agency measure. *Family Relations*, 45, 216-222.
- Goldberg, S.(1977). Social competence in infancy : A model of parent-infant interaction. *Merrill-Palmer*

- Quarterly*, 23, 163-177.
- Gondoli, D. M., & Silverberg, S. B.(1977). Maternal emotional distress and diminished responsiveness : The mediating role of parenting efficacy and parental perspective taking. *Developmental Psychology*, 33(5), 861-868.
- Hoffman, L. W.(1975). Moral internalization, parental power, and the nature of parent-child interac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11, 228-239.
- Johnston. C., & Mash, E. J.(1989). A measure of parenting satisfaction and efficacy.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8, 197-175.
- Kotchick, B. A., Forehand, R., Brody, G., Armistead, L., Simon, P., & Clark, L.(1997). The impact of maternal HIV infection on parenting in inner-city african american familie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1(4), 447-461.
- Levy-Shiff, R., Dimitrovsky, L., Shulman, S., & Har-Even, D.(1998). Cognitive appraisals, coping strategies and support resources as correlates of parenting and infant develop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34(6), 1417-1427.
- Lewis, J., Owen, M. T., & Cox, M. J.(1988).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 III. Incorporation of the child into the family. *Family Process*, 27, 411-421.
- Martin. A. J., & Sanders, M. S.(2003). Balancing work and family : a controlled evaluation of the Triple P-Positive Parenting Program as a work-site intervention. *Child and Adolescent Mental Health* *Volume*, 8(4), 161-169.
- Mash, E. J., & Johnson, C.(1983). Parental perceptions of child behavior problems, parenting self-esteem, and mother's reported stress in younger and task situations.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2, 337-346.
- Scheel, M. J., & Rieckmann T.(1998). An empirically derived description of self-efficacy and empowerment for parents of children identified as psychologically disordered. *Th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15-27.
- Shapiro, J. R., & Mangelsdorf, S. C.(199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competence in adolescent mother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3 (6), 621-641.
- Simons, R. L., Lorenz, F. O., Wu, C. I., & Conger, R. D.(1993). Social network and marital support as mediations and moderators of the impact of stress and depression on parental behavior. *Developmental Psychology*, 29, 368-381.
- Teti, O. M., & Gelfand, D. M.(1991). Behavioral competence among mothers of infants on the first year : The mediation role of maternal self-efficacy. *Child Development*, 62, 918-929.
- Thomas, A., & Chess, S.(1977). *Temperament and Development*. New York : Brunner, Mazel.
- Webster-Stratton, C.(2000). *The incredible years training series*. Juvenile Justice Bulletin. U.S.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June, 2000.

2004년 10월 31일 투고 : 2004년 12월 14일 채택